

제 4 차 전국로병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어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3 면에서 계속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인민군용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원불멸할 시대정신인 조국수호정신을 창조하였으며 정신력의 강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리를 피로써 력사에 아로새기였다고 말하였다.

조국수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근본핵으로 하는 승고한 혁명정신이며 조국을 자기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한치한치의 땅을 목숨바쳐 지켜낸 열렬한 조국애의 정신이며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 백절불굴의 의지로 충만된 견결한 투쟁정신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조국수호정신의 창조자, 구현자이신 로병들이 진후 60여년세월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며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혁명적기상과 위력을 떨치는데 불멸의 기여를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갈 억척의 신념과 순결한 의리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움으로써 혁명위업계승의 민족사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앞장선것은 로병들의 특출한 공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1990년대의 나날에도 로병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신념과 의리의 한모습으로 받드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한없는 믿음속에서 우리 로병들은 긍지높은 혁명선배로, 나라의 보배로 영광찬란 삶을 누리며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역세게 걸어왔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라는 친필로 조국방위자들의 영웅적위훈과 업적을 조국청사에 더욱 값높이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오늘 우리 로병들의 불멸의 공적은 세대와 년대를 이어 더욱 빛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로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필승불패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가장 승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선군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그는 친하게일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그 정신, 그 전통을 이어 침략자들을 깨뜨리 싸워버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며 우리 민족과 로병들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축포를 장쾌하게 쏘아올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반미대결전에서 승리만을 떨쳐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조국통일대전에서 승리를 이룩 하자면 전체 군대와 인민을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보고자는 로병들이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지난날 혁명대오의 진렬에서 당과 수령을 신념과 광심으로 충직하게 받들어온것처럼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적인생을 값높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병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진승업적과 선군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데서 혁명선배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는 한다.

1950년대의 시대정신을 조국수호, 조국번영의 고귀한 제보로 간직하고 드림없이 계승해나가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 우리 후대들의 승고한 의무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로병들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열렬한 애국주의정신, 대중적영웅주의와 고귀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할것이다.

인민군대에서는 모든 장병들을 조국수호정신의 열렬한 체현자, 사상과 도덕의

강자들로 준비시키며 모든 부대들을 그 어떤 형태의 전쟁과 작전, 전투에서도 백승할수 있는 무적의 전투력을 지닌 최정예의 근위부대로 만들어야 한다.

당이 제시한 병진로선을 끝까지 관철하는 길에 조선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철석의 의지를 안고 국방공업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인민군대의 무장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꾸려나가는 한다.

군대와 인민이 한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침략자들과 싸워이긴 전민항전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단애에 때려부실수 있도록 군민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한다.

1950년대의 투쟁정신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돌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진화의 그 정신, 그 투지로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군민협동작전으로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청년들은 백두의 칼바람맛을 알고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열혈투사가 되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최후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감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김정은시대의 리수복, 강호영, 조군실이 되어 청년강국의 위용을

더 높이 펼치고 우리 조국에 통일강국의 문패를 거머잡아야 할것이다.

조국을 피로써 지켜싸운 로병들을 혁명선배로,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보배로 존중하고 우대하는 사회적미풍을 더 활짝 꽃피워야 한다.

로병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라는 긍지를 안고 한생을 빛나게 총화할수 있도록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성실성의로 돌봐주어야 한다.

보고자는 모두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 해주신 백전백승의 빛나는 전통과 튼튼한 토대가 있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투에서 이끄시기에 백두산대국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의 7.27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이 차넘쳤다.

대회는 《승리는 대를 이어》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제4차 전국로병대회는 당의 선군혁명령도따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과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